

대학생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양현주, 박미라, 제남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ffects of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Hyun-Joo, Yang, Mee-Ra Park, Nam-Joo J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이다. G도,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8주간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IBM SPSS 24.0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검증, 동질성은 실수와 백분율,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와 Independent t-test, 프로그램의 효과검정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군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후 인권감수성($t=-2.32, p=.025$), 윤리적 가치관($t=-2.43, p=.020$)이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 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대학생, 딜레마, 윤리적 가치관, 인권, 토의 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i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f university students. By providing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to university students in C university, G-do, the effectiveness was verified. Analyzed using IBM SPSS 24.0. The normality of the variables was verified by Shapiro-Wilk test. Homogeneity was verified using real number and percentage,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program's effect was verified using paire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fter the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the experimental group's human rights sensitivity($t=-2.32, p=.025$), and ethical value($t=-2.43, p=.020$) wer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of this study helped improve the human rights susceptibility and ethical values of the subject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verify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diverse groups.

Key Words : Dilemma, Discussion program, Ethical values, Human rights, University stud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8(Changshin-2018-30).

*Corresponding Author : Nam Joo Je(poo4757@naver.com)

Received July 31,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August 26,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순간 선택의 과정을 겪는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지침이 되는 법칙과 원칙의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윤리 이론이다. 이 과정 속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딜레마는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윤리적 딜레마는 상충되는 두 가지 이상의 도덕적 요건 속에서 각 대안의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만족스런 해결을 할 수 없어 곤경, 상실, 무력감을 발생시킨다[1].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Zeidler 등[2]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인성, 도덕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교육을 시행할 때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결정할 때 윤리적 가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등이 중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상황으로 지각하고,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미칠 영향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하고[3],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 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감수성 함양이 필요하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윤리적 가치관이며[4] 이것은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가능하다[5]. 기존 시행된 윤리교육은 실제 사례를 접목한 학습을 통해 가치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검증된 지식을 따르도록 하는 주입식 교육방식이 많아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도덕발달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그러므로 학생들의 바람직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다.

윤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간호대학생, 의과대학생,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교육, 종교, 연령, 성격유형 등의 요인이 생명의료윤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11]. 또한, 딜레마 해결력을 증진하기 위해 딜레마형 논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었다[12-15]. 그러나 논의 자체도 많지 않고, 논제 자체가 앞으로 사회인이 될 학생들에게 편파적 사고를 지양하고 사고의 균형을 잡게 하며 학생들

이 처한 상황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참여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윤리적 가치관이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 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도 C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8주(24시간)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
- 2) 실험군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8주, 24시간)을 이수한 자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aired t-test에 필요한 효과 크기 $d=0.5$ (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은 0.9을 했을 경우 최소 표본크기는 36명으로 산출되었다. 초기 대상자는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여 각 그룹당 42명으로 선정하였으나, 연구

진행 중 프로그램 참여자 중 결시자(24시간 교육 미 이수) 2명이 발생되어, 최종인원은 실험군 40명, 대조군 42명이었다. 동질성 확보를 위해 대조군은 실험군과 같은 과, 같은 학년의 짝짓기로 선정하였다.

2.3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의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8주간(24시간) 프로그램으로, 1주차: 1회기-오리엔테이션, 2회기-작소개, 질문만들기 하브루타 3회기-생명의료윤리 개요, 2주차: 사례를 통한 생명의료윤리학, 자연법 윤리, 공리주의, 칸트윤리, 생명의료윤리 4원칙 이해하기, 3주차: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4주차: 영화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 이해하기, 5주차: 생명의 시작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토의, 6주차: 죽음의 이해와 현대인의 죽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토의, 7주차: 심폐사, 뇌사,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토의, 8주차: 대리모, 낙태, 인공수정,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 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참고).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1주에 3시간씩, 총 8회차, 24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방법은 이론은 강의식 전달교육과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주제에 따른 짝토론, 모둠토론,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구성 검증을 위해 교육학 전공교수 2인과 호스피스 표준교육을 이수한 2인에게 검토 받았다. 평가 결과, 주차별 활동지를 만들어 작성해봄으로써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주고, 4주차 영화는 다양한 영화보다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토론 주제로 제시하고 토의함으로써 윤리적 민감성을 일깨우고 윤리적 사고 훈련의 기회가 되어 좋을 것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

2.4 연구도구

2.4.1 대상자 제 특성

대상자 제 특성은 선행연구[16]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성별, 학과, 학년, 종교, 윤리적 리더십 교육경험, 인권 교육경험, 세계인권선언과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인권교육 필요여부 등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4.2 인권 감수성

인권감수성은 Park[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질문은 5점 척도이고 5개의 에피소드별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피소드는 노인의 행복추

구권,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 남·여 평등권, 장애인 신체 자유권, 정신장애인 사생활권이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상황지각), 그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결과지각),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책임지각) 하는지를 측정하며, 점수는 높을수록 인권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 이었다.

2.4.3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은 Schlenker와 Forsyth[18]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 척도(EPQ: 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Park[19]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1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8$ 이었다.

2.5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였으며, 연구자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석에 동의한 42명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A과, B과, C과, D과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42명은 실험군에 배정하였고, 짝짓기 방법으로 4개 학과에서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42명은 대조군에 배정하였다. 사전조사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사후조사는 중재를 마친 직후에 실시하였으며, 대조군도 같은 시기에 사전,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 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Table 1. Contents of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Session/theme	Program content	Time (min)	Method	Effects expected
1. Understanding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Overview of the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50	lecture	Understanding about ethical dilemma discussion program
	Introduction to a partner Create a question havruta	50	announcement partner discussion question create activity paper	Character-raise Ethical leadership-raise
	Outline of biomedical ethics	50	lecture videos	Knowledge about biomedical ethics
2. Learning moral theory	Case study of biomedical ethics Ethics of natural law Utilitarianism Kant's ethics Principle of 4 medical ethics	150	lecture partner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Character-raise Ethical value-raise
3. Teaching moral theory	Teach your friends havruta	150	havruta create activity paper	Character-raise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4. Understanding ethical dilemmas	Understanding ethical dilemmas through movies	100	videos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Human rights sensitivity-raise
		50	partner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5. Life and human dignity	Discuss the ethical dilemma of the beginning of life and human dignity	50	lecture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Human rights sensitivity-raise
		100	group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6. Understanding death	An understanding of death and an ethical dilemma about the death of modern people	50	lecture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Human rights sensitivity-raise
		100	group I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7. An ethical dilemma case for death	Discussion of ethical dilemmas on cardiovascular death, brain death, euthanasia, and dignity	150	group / all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Human rights sensitivity-raise
8. An ethical dilemma in issue	Discussing ethical dilemmas for surrogate mothers, abortions, artificial insemination, and organ transplants	150	group / all discussion announcement create activity paper	Ethical leadership-raise Ethical value-raise Human rights sensitivity-raise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도중에 연구 참여를 포기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15분이며, 작성 후 설문지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였다. 받은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숫자로 대상자의 정보를 식별하였다. 자료는 잠금장치의 보관과 일에 따로 저장하며 본 연구자 외에는 접근을 제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한 후 소각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여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대조군에게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생명 의료윤리 자료집을 제공하였다.

2.7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수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연구진행과정에서 24시간 미이수자 2명으로 최종인원은 실험군 40명, 대조군 42명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연구변수의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여부는 실수와 백분율 및 X^2 -test,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와 Independent t-test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가설검증은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8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도, C시 소재 일개 대학교에서 진행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참고). 또한 두 집단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동질성 검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3 참고).

3.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로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규성 검증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모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N =82)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40)		Cont. (n=42)		χ^2 or t (p)
			n(%)	M±SD	n(%)	M±SD	
Age(yr)	18		22(55.0%)	18.45	26(61.9%)	18.38	0.40 (.341)
	≤19		18(45.0%)	±0.50	16(38.1%)	±0.49	
Gender	Male		11(27.5%)		8(19.0%)		0.82 (.437)
	Female		29(72.5%)		34(81.0%)		
Department*	Nursing		35(87.5%)		35(83.3%)		0.86 (1.000)
	Aeronautical mechanical engineering		1(2.5%)		2(4.8%)		
	Police administration		1(2.5%)		2(4.8%)		
	Fire &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3(7.5%)		3(7.1%)		
Grade*	Freshman		39(97.5%)		42(100%)		.488 (.488)
	Sophomore		1(2.5%)		0(00.0%)		
Religion	Yes		16(40.0%)		14(33.3%)		0.39 (.647)
	No		24(60.0%)		28(66.7%)		
Ethical leade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7(17.5%)		11(26.2%)		0.90 (.427)
	No		33(82.5%)		31(73.8%)		
Ethical leadership Education time*	Yes	1~3 hour	4(57.1%)		7(63.6%)		1.000 (1.000)
		≤4 hour	3(42.9%)		4(36.4%)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 know		17(42.5%)		15(35.7%)		0.39 (.651)
	I don't know		23(57.5%)		27(64.3%)		
Human rights education	Yes		21(52.5%)		28(66.7%)		1.71 (.260)
	No		19(47.5%)		14(33.3%)		
Human rights education time*	Yes	1~3 hour	18(85.7%)		21(75.0%)		.482 (.482)
		≤4 hour	3(14.3%)		7(25.0%)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Yes		39(97.5%)		40(95.2%)		1.000 (1.000)
	No		1(2.5%)		2(4.8%)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3. Homogeneity test of variables

(N=82)

Variables	Total (n=82)	Exp. (n=40)	Cont. (n=42)	t	p
		Mean±SD	Mean±SD		
Human rights sensitivity	3.77±0.29	3.79±0.26	3.76±0.32	0.47	.639
Ethical value	3.87±0.38	3.82±0.37	3.93±0.38	-1.27	.208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Regularity verification for dependent variables

(N=82)

variables	Shapiro-Wilk			
	Exp. (n=40)		Cont. (n=42)	
	Shapiro-Wilk	p	Shapiro-Wilk	p
Human rights sensitivity	.988	.935	.969	.315
Ethical value	.980	.698	.988	.92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5 Differences in ethical value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between groups

(N = 82)

Variables	Groups	pre test(M±SD)	post1 test(M±SD)	Paired t-test(p)
Human rights sensitivity	Exp. (n=40)	3.79±0.26	3.94±0.29	-2.92(.006)
	Cont. (n=42)	3.76±0.32	3.76±0.26	-0.15(.879)
Ethical value	Exp. (n=40)	3.82±0.37	3.99±0.41	-2.43(.020)
	Cont. (n=42)	3.93±0.38	3.91±0.38	0.95(.345)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Post1 test=right after intervention trails ended

3.3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효과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적용 후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설 1.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제1가설 검증을 위해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의 사전과 사후 인권감수성 점수를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사후에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t=-2.92, p=.006$),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로 인권과 관련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황지각 항목에서 실험군의 사전보다 사후 상황지각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32, p=.025$). 그 상황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결과지각 항목에서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 결과지각 영역은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1, p=.116$).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책임지각 항목에서 실험군의 사전보다 사후 책임지각 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55, p=.001$). 가설 2.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윤리적 가치관이 높아질 것이다.’

제2가설 검증을 위해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군의 사전과 사후 윤리적 가치관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사후에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t=-2.43, p=.020$),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문항으로는 ‘결백한 사람에게는 기필코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t=-2.39, p=.022$)와 ‘미래에 좋고 나쁜 일을 상상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일이다’($t=-2.19, p=.034$) 항목이 실험군의 사전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이하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인권감수성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후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 [20-23]들과 일치하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수업을 통해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국내의 다른 연구들은 지역센터 아동[23] 중학생[20], 가출청소년[21], 지역센터 교사[22], 노인시설 종사 간호사[24] 등을 교육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대학생의 인권의식이나 인권태도

에 관해 조사한 연구도 충분치 않으며,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준비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25].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은 개인적 특성인 성별, 전공, 학년[26]과 개인경험인 사회봉사, 헌혈, 장기기증 여부, 인권교육 등이 인권감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27]. 따라서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정도와 다양한 인권 유형들을 파악하여 대상자들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험군은 사전보다 사후에 윤리적 가치관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은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프로그램 중재 후 윤리적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 문항 중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함'에 대한 가치관이 향상되었다. 이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로 결과로 행동을 판단하는 결과주의 철학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의무론적 철학에 대한 가치관 확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액션러닝 기반 윤리교육에서는 교육을 받은 실험군의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대조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28]. 반면, 간호학과 1-2학년을 대상으로 블랜디드 러닝 문제중심 학습과 사례중심학습을 적용한 Kim[29]의 연구와 CEDA 토론학습을 간호대학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Jung 등[30]의 연구에서는 교육 후 윤리적 가치관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의 차이는 조사대상자 및 윤리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31]에서 보건계열과 비보건계열 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생명공학에 대한 인식 외 안락사, 뇌사 등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대학에서 교육을 통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생명의료에 관한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윤리적 가치관은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강의식 이론전달 수업보다는 역할극, 사례기반 토의학습, 소그룹 토의 등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다[28]. 또한,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사전, 사후 인식을 비교함이 필

요하다[32]. 따라서 본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론은 강의식 전달교육으로,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분석 및 문제해결방법은 짝토론-모둠토론-전체토론을 실시하는 하브루타 수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을 위해 대리모, 낙태, 인공수정, 장기이식, 심폐사, 뇌사, 안락사, 존엄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1주에 3시간씩, 총 8회차, 24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육 중재 후 실험군의 인권감수성, 윤리적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윤리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조사대상자 및 윤리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있었으므로 추후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윤리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C시 일개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윤리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윤리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의 인권감수성과 윤리적 가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토의식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어, 향후 인권향상 및 윤리적 가치관 함양을 위한 윤리교육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1) 윤리적 딜레마 토의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2) 1회성 프로그램보다 기본, 심화, 응용과정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L. O. Walker & K. C. Avant. (1988). Strategies for Theory Construction in Nursing, Norwalk : Appleton-Century-Crofts.
- [2] D. L. Zeidler, T. D. Sadler, M. L. Simmons & E. V. Howes. (2005). Beyond STS : A Research-Based Framework for Socioscientific Issues Education. *Science Education*, 89(3), 357-377. DOI : <https://doi.org/10.1002/sce.20048>
- [3] Public Education Tea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6). *Jim Ite Invited ; Workshop for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4] M. S. Kim. (2015).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82-392. DOI :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5] L. L. Hsu. (2011). Blended Learning in Ethics Education: A Survey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18(3), 418-430. DOI : <http://dx.doi.org/10.1177/0969733011398097>
- [6] M. A. Lee. (2013). Changes in Nursing Students' Moral Judgment and Ways to Evaluate the Effect of Eth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3), 351-360. DOI : <http://dx.doi.org/10.11111/jkana.2013.19.3.351>
- [7] M. R. Park & N. J. Je. (2018). The Difference of Biomedical Ethics Consciousness, related Knowledge, Awareness, and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1), 137-147.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
- [8] H. Y. Jung & K. I. Jung. (2012)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4), 37-48. DOI : <https://doi.org/10.12811/kshsm.2012.6.4.037>
- [9] Y. H. Kwon. (2009).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2), 262-272.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59>
- [10] M. H. Lim & C. S. Park. (2014).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7), 4423-4431.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359>
- [11] Y. S. Ahn, J. H. Han & K. E. Kim. (2013).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Personality Types on Bioethical Perception. *The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Science*, 13(3), 347-353.
- [12] S. S. Lim. (2013). Techniques & Strategies of Questioning Specialized to Major Teaching Models in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9, 213-236.
- [13] S. H. Hong. (2000). The Effects of dilemma discussion on the Moral Development of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12(2), 227-253. DOI : <https://doi.org/10.17715/jme.2000.11.12.2.227>
- [14] H. S. Shin. (2014). A Case Study About Conflicts in the Movie as the Text of Negotiation Education, with Dilemmas in the Movie 'All About My Wife'. *Ratio et Oratio*, 7(2), 309-349. DOI : <https://doi.org/10.19042/kstc.2014.7.2.309>
- [15] J. R. Jeong. (2015). A Study on Dilemma Narrative-Based Debate Lesson Plan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9(3), 249-279.
- [16] S. M. Lee. (2010).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Perception of Youth Lead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Gyeonggi-do.
- [17] J. O. Park. (2014). *A Study o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18] B. R. Schlenker & D. R. Forsyth, D. R. (1977).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4), 369-396.
- [19] H. S. Park. (2000). Evaluating the Ethics of Controversial Advertising Issues and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11(3), 147-163.
- [20] S. A. Lee & H. W. Lee. (2007),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in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2), 47-75.
- [21] S. A. Lee & H. W. Lee. (2009). A Develop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Runaway Youth.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16), 1-29.
- [22] H. W. Lee, H. R. Lee, J. E. Yoo, S. A. Lee & H. Y. Jang. (2010).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Focused on Human Rights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4), 149-170.
- [23] S. R. Jung & E. J. Kim.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Improving Human Rights Sensitivity of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19(3), 437-461.
- [24] K. K. Kim. (2010). Development of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on Human Rights of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4), 463-472.
DOI : <https://doi.org/10.4040/jkan.2010.40.4.463>

- [25] T. E. Shim & S. Y. Lee. (2018). The Study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Types of Perception in regards to Human Right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352-360.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8.19.10.352>
- [26] H. J. Kim. (2010). Analysis about the Perception Gap on the Human Rights Status Quo in Social Worke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4, 109-132.
- [27] J. H. Kim. (201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Workers' Perception on Human Right in the Residential Homes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Gongju.
- [28] E. J. Kim & J. H. Park. (2017). The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elf-assertiveness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4(3), 179-186.
DOI : <http://dx.doi.org/10.5953/JMJH.2017.24.3.179>
- [29] S. D. Kim. (2014). Effects of a Blended Learning Program on Ethical Value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5), 567-575.
DOI :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5.567>
- [30] H. J. Jung, H. J. Park & I. S. Jang. (2012).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based upon CEDA Debates on Moral Judgment and Ethical Valu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248-258.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248>
- [31] S. Y. Park & K. Y. Park. (2015).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6(6), 255-261.
DOI : <http://dx.doi.org/10.15207/JKCS.2015.6.6.255>
- [32] M. Y. Jeon & H. W. Lee. (2017). A Survey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Universities i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5), 1-13.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5.001>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신생아, 임신·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피임
- E-Mail : minerva32@cs.ac.kr

제 남 주(Nam-Joo Je)

[정회원]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성교육, 여성건강.
- E-Mail : poo4757@naver.com

양 현 주(Hyun-Joo Yang)

[정회원]



- 2012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모유수유, 건강증진, 생식건강
- E-Mail : elijah7878@nate.com